

완주군 보건소 신축 이전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96억여원 투입 2019년 준공

완주 삼봉공공주택지구(웰빙시티)에 신축될 예정인 완주군 보건소가 국가 예산 확보로 내년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완주군은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17년도 국비 3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완주 삼봉공공주택지구 신설

될 군 보건소는 앞으로 추가 자체 예산(도·군비) 확보 후 내년 착공이 가능해졌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연면적 3600㎡ 규모로 신축될 군 보건소는 총 96억3900만원 예산 투입해 오는 2019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 15만 자족도시 위상에 맞도록 외부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사업실,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합 관리해 양질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치료, 운동사업, 영양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는 등 예방 및 건강 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완주 군민의 보건·건강 질을 한단계 높이

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은 보건소 신축이 이달 3일 개최된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서 국비 확보를 전제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엔 국비가 확보된 것을 고려해 12월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박성일 군수는 "국비 확보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보건소 신축 이전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박차

운영·관리 토론회 개최... 모노레일 주변·향로산 정상 조망권 확보 방안 논의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 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무주읍 전통문화의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북경제연구원 에 의뢰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모색을 수 행하고 있는 무주군이 주민들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사)전북경 제연구원 임수원 박사, 한국관광개발 연구원 이동원 대표 등 관련 분야 전 문가들과 그리고 전북 데미셀자연휴양 립과 경남 거창 금원산 자연휴양림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 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

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법, 모노레일 주변과 향로산 정상에서의 조망권 확보 방안, 그리고 주중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마케팅)에 관한 내용들을 논의했다. 황정수 군수는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하고 무주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 군으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는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가 생태·휴양·문화·교육 기능 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원동력"이라며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완벽한 운영·관리를 시작해 무주군 또 하나의 명소로 각광을 받 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 일원에 조성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2011~2016)는 총 사업비 3백여 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60ha규모에 숙박(숙숙 나무집 등)과 편의(방문자 센터, 쉼터 등), 체험(바다분수, 인공 폭포, 야영장 등), 모험시설(모노레일 등)을 갖추고 2017년 4월부터 정식 운 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모노레일 설치공사까지 완료하면 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공진율은 현재 91.3%를 보이고 있 으며, 무주군은 올 12월까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관리방안 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기자

"무주발전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을" 이한승 군의원, 5분발언서 촉구

무주군의회 이한승의원(사진)은 16일 개최한 제253회 정례회 에서 5분발언을 통해 '화이부실(華而不實)'로 평가받는 무주군의 현 실태를 지적하며 함께 시대의 위기를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관광과 농업은

무주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쌍두마 차'였으나 지금은 "계속되는 농업어 건 약화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농가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농업"과 "투잡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든 관광산업"의 기막힌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민선6기 들어 무주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2017 무주 WIT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유치 함으로써 지역 위상을 한껏 드높이고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 그 이후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도 못 한 '무주군 희망 비전위원회'를 예로 들며, 이의원은 석기시대가 끝나고 청 동기 시대가 열린 것은 돌맹이가 다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발전 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 지적 하고 "다이나믹하고 약동하는 무주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역 발전의 주체들이 보다 집합적인 자세 로 현실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무주=전문기자

무주군 어르신 문화·효도잔치 '성황'

무주군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및 효도잔치가 16일 무주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사)전라북도 자원봉사

센터가 주최하고 무주군자원봉사센터와 무주종합복지관이 주관하며 무주군이 후원한 것으로, 어르신 등 3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및 효도잔치가 16일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가운데 어르신 등 3백여 명이 함께 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완주군, CCTV 비상벨시스템 169곳 구축

완주군이 어린이, 여성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와 함께 CCTV 비상벨시스템을 구축, 안전한 완주 조성에 나서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2016년 9월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235개소 496대로 학교 앞, 공원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463

대와 추정차단속, 재난안전, 산불감시 등 시설관제용 CCTV 33대가 설치돼 있다. 특히 위급상황 발생시 CCTV 비상벨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와 양방향 통 화는 물론, 영상까지 확보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시스템을 169개소에 구축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어린이, 여성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와 함께 CCTV 비상벨시스템을 구축, 안전한 완주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완주군의회 성명 발표

완주군의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이날 정성모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하야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사용해야 함에도 최순실이라는 일개 개인에게 무단으로 권한을 이양해 봉건시대에 서 조차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광범위한 국정농단을 저지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 "K스포츠·미르 재단과 관련 된 각종비리와 이권개입은 물론 대통령 연설문 작성과 국무회의 자료 사전유출 등 상식을 뛰어넘

는 헌정문란과 헌법과국헌위를 저질러 국민들로 하여금 집단적 인 분노를 넘어 공황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는 국민들이 주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게 만들었고 공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를 통해 하야하라는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호남에서는 이미 대통령 지지를 0%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해고결정을 내렸다"며 "완주군 의회는 10만 완주군민과 더불어 국정농단의 동몰이자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더 이상 헌법 정신 운운하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국민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하야할 것"을 촉구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의회 시국선언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16일 장수군의회 청사 앞에서 "국민을 기만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며 시국선언을 가졌다. 장수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은 시국선언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봉건 왕조시대보다 못한 정치가 지배되고 있으며, 특정 개인이 대통령위에 군림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의원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몇몇 관련자 구속, 청와대 인사개편, 거짓 대국민 사과 등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국정 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하야한 후 수사를 받고, 검찰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근간을 어지럽힌 당사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노,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의원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몇몇 관련자 구속, 청와대 인사개편, 거짓 대국민 사과 등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국정 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하야한 후 수사를 받고, 검찰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근간을 어지럽힌 당사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농기센터, 농촌자원분야 '우수상'

지역농식품 판로개척 성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가 2016년 농촌자원분야 경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은 농촌진흥청에서 6차산업 성과확산 우수기관을 평가 선정한 것으로 장수군은 1차 농업기반 조성 과 레드푸드를 중심으로 한 가공기반 구축, 지역리더 역량강화, 지역농식품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 등의 성과를 인정 받았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단위 농촌진흥기 관과 지역특화품목 현장실용화 연구 를 통해 농산물의 재배 기반을 확고 히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인대학을 지속 운영 하여 1,338명이 수료 하는 등 농업리 더 양성에 힘써 왔다. 또한 농촌분야의 부가치 향상을 위 해 2010년부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공식품을 개발 상품화 하였으며, 창업교육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돕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장수시 품플러스터사업을 통해 식품기업 3개 소를 유치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는 등 지역의 6차산업 활성화를 기여했으며, 신제품개발, 프랜차이즈사업 등 지역 농산물을 활 용한 식품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경북 생활개선회원, 진안군 문화 탐방 나서

영호남 화합과 상생을 위한 교류행사로 16일 경북 생활개선회원 40여명이 진안군 문화 탐방에 나섰다. 경북과 전북 생활개선회는 지난 4월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협력을 위한 교류와 방문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과 각 지역의 우수분야를 벤치마킹해 지역사회와 농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진안탐방은 농업기술센터 시설견학과 천연 한방재료를 이용한 천연화장품 실습, 농가 밭길 탐방, 흥삼스파 체험과 숙박, 생활개선회 발전 방안 토의 등이 주요내용으로 현장체 험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참석회원의 흥미와 만족도를 높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생활개선회 고지정 회장은 "생활개선회회원의 교류로 지역 농 특 산물의 판로 확대를 꾀하고, 공간 불 락된 다른 지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이런 뜻 깊은 행사를 진안에서 추진하게 되어 우리 고장 진안을 알 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서영화 진안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북과 경북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 류를 통해 영호남이 화합의 장을 마 련하고, 나아가 우수정책과 사례 공유 및 상호협력을 통해 진정한 동서화합 의 초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공원

진안군, 군청사 합동소방훈련

진안군은 16일 실제 화재를 대비한 군청사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무진장소방서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진행된 훈련은 상황전파, 지위소방 대에 의한 초기 화재진압 훈련, 인명대 피, 피난유도 및 인명구조 훈련,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순으로 실제 상황처 럼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및 응급 상황을 가상하여 지위 소방대의 신속하고 적절 한 초기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관서의 화재진압 출동 시 원활한 지원과 협조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근상 부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발생시 대처능력 향상과 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하여 실제 화재에서 도 당황하지 않고 지위소방대의 즉각적 이고 적절한 행동을 발휘할 수 있는 역 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국유림관리소 인화물질 집중제거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연접 및 인근지역에 대해 인화물질 제거사업 을 추진해 산불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무주국유림관 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시·군에 대 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을 인화 물질 제거반으로 편성해 지역별 순찰을 통해 산불위험이 높은 곳부터 제거사업 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연접 및 인근 경 작지의 인화물질 제거와 농산폐기물 수 거며,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 갈퀴 등의 장비를 이용해 작업을 실시하 고 불가피한 소각은 산불방지 안전조치 를 강구한 후 마을별로 산불위험도가 낮 은 바람없는 날 오전 중 공동으로 소각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기자

농협 진안지부-한전 전북본부 '전기재해 없는 마을 만들기'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지부장 장기요)와 한전농협,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 역본부는 16일 전기 재해 없는 안전마을 을 만들기 사업을 개설했다. 이날 진안군 주천면 구암마을의 노후주 택 30여 농가를 방문하여 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누전차단기, 콘서트 노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진단 시 발견된 노 후·불량 설비를 현장에서 정비·교체 했다. 이날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농협진안군 지부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공헌 활 동을 일환으로 4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사용에 있 어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전기사용으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되었다. 장기요 지부장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상호협조를 농촌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사랑의김장나누기' 행사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관장 경규봉)은 16일 진안 주공차 경 로당, 주공2차 경로당, 월랑경로당 경로당 임원 및 경로당어르신들과 사랑다리 봉 사단(단장 한은숙)과 함께 독거노인 겨 울나기를 위한 "老-老 사랑의 김장나 누기"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로당 임원 및 어르신들 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의 독거어 르신 50가정에 1통씩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 는 의미에서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 사랑다 리봉사단원 모두 배추를 정성껏 버무리 며 땀은 고되지만 우리 지역 이웃과 소 외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